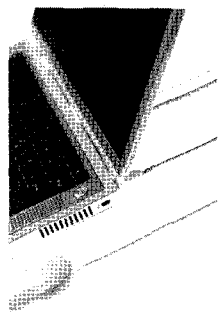




— **조합 · 업계소식** [www.kcca.or.kr](http://www.kcca.or.kr)



- 폐지(OCC)의 수출 다변화 정착
- 대기업 계열 전자상거래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건의
- 2010년도 골판지포장 총량 추가 신청 안내
- 2011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 2010년도 조합원사 하계휴가 계획 현황 안내
- 2010 도쿄국제포장전 및 시찰단 파견 안내
-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실태 조사결과
- 중소기업 1,2세대 가업승계 실태조사
- 6월 中企 평균가동률 72.7%, 3개월 연속 담보 상태

## 폐지(OCC)의 수출 다변화 정착

지난 2010년 4월 이후 골심지 수출은 급격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지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아래표 참조) 이는 국내 가격이 수출단가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읽혀지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폐지의 중국 수출은 급감하면서 대만,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이 급증하여 수출다변화 구축으로 폐지의 수출산업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폐지수출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수입폐지에 대한 품질검사 절차가 변경 강화되면서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하반기 들어 중국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분	2010. 1~7월 수출입 누계 (단위 : 톤)			
	골심지		OCC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월	10,886	0	14,503	21,289
2월	7,219	0	16,768	16,788
3월	9,989	50	21,869	19,623
4월	2,796	51	16,832	25,478
5월	1,423	2	15,325	28,086
6월	1,557	31	12,153	30,940
7월	1,776	32	6,085	30,081
누계	35,646	166	103,535	172,285

※ 출처 : 관세청

## 대기업 계열 전자상거래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건의

골판지조합(이사장 오진수)은 대기업계열 전자상거래기업의 하도급물품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영업확장전략에 대하여 중소기업계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지난 7월 30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건의하였다.

국내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과 엘지그룹 등은 계열사에서 필요한 소모성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아이마켓코리아와 서브원을 설립하여 그동안 각계열사가 직접 구입하였던 골판지상자를 이들 전자상거래기업을 통하여 구입함으로써 중소기업계는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기업에 수수료를 추가부담하며 납품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으며, 아울러 전자상거래기업들은 그룹사 협력업체 또는 일반기업들이 구입하는 골판지상자에 대해서도 현재 단가 대비 10%이상 인하를 조건으로 구매대행을 무차별적으로 제안하면서 중소기업계포장기업의 영업기반을 잠식하고 있다. 이들 전자상거래기업들은 2~3년 이내 국내 골판지상자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중소기업계포장기업계의 경영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과거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 운영시 나타난 위장계열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친인척 또는 전직우대 전례에 비추어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달성하면 친인척 또는 임직원을 통하여 물품의 직접생산을 시도하여 궁극에 중소기업계포장기업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은 중소기업계의 생존권 확보의 일환으로 골판지포장업체와 영업환경이 유사한 타 포장소재업체와 연계하여 대기업 계열 전자상거래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대정부 건의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일환으로 별첨자료와 같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조사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등을 건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신 후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News

smenews.kbiz.or.kr 2010년 8월 18일 수요일 제1796호

## ‘대기업 MRO사업 조사’ 건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대기업 계열의 구매대행사업(MRO) 업체들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침범하고 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삼성과 LG의 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와 서브원 등 구매대행업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해 그들 계열사의 주문 물량을 가져가고 일반 기업을 상대로 한 사업으로도 범위를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업체들은 향후 2~3년 안에 국내 골판지 상자 유통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 업체들의 경영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경제

2010년  
8월 16일 월요일  
hankyung.com

정 14765호 47면 | 대표전화 02-360-4114

## 골판지상자 ‘납품 갈등’ 고조

### 제조사 ‘단가 후려치기’ 공정위 의뢰 구매 대행사 ‘상생위해 단가 인상’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대기업 납품을 놓고 중소기업체와 소모성 자재(MRO)를 구매대행하는 대기업 계열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아마켓코리아(IMK)와 서브원이 중소기업체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회사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로 복사용지 등 각종 소모성 자재를 그룹사를 대신해 구매·납품해주고 있다.

조합측은 “IMK와 서브원이 작년 초부터 시장 평균가격보다 10~15% 정도 싸게 포장용 골판지상자를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두 회사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체 제 조업체와의 거래를 끊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조합 관계자는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쟁사의 고객이 자사 외만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지난해부터 대기업들이 조합회사와의 거래를 끊거나 대폭 줄이는 대신 IMK나 서브원에서만 납품받는 것을 봤을 때 구매대행사가 독점거래를 요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또 구매대행사들이 골판지상자의 50% 이상을 소비하는 대기업들

등에 업고 중소기업체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매대행사들이 납품 대기업에 최대 15% 이상 낮은 단가로 물건을 공급하는 대신 가격 인하분을 고스란히 중소기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게 조합측 주장이다.

김진무 골판지조합 전부는 “사실상 경쟁관계인 구매대행사로부터 단가인하 요구를 받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단가인하 요구치가 너무 커 수용하기 힘들다”며 “마진이 평균 3% 수준인데 15%를 깎아서 파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골판지 업계가 고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매대행사들은 “조합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단가인하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IMK관계자는 “올해 골판지 원료인 페지와 펄프의 국제가격이 대폭 인상된 것을 감안해 골판지 납품업체들과의 상생차원에서 단가를 20~30%가량 올려줬다”며 “조합 회사들이 고맙다는 말을 전해오기까지 했는데 (조합의 공정위 조사 요구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행사 관계자는 “모기업에 골판지 상자를 납품한 것은 예전부터 지속돼 온 거래 관행이고 거래량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구매기업의 재량이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도 골판지 제조업체들에 공급 단가들을려준 마당에 가격을 내려서 판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 경향신문

제2224호 2010년 8월 3일 화요일 **경향신문 17**



**상생협력  
대기업  
두 얼굴**

## 삼성·LG 계열사 '납품가 후려치기'

한국콜마지포장공인협동조합은 삼성·LG 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중소기업들의 납품 가격을 후려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합은 출판지를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모임이다. 조합은 "이들 대기업이 겉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외치면서도 실상은 중소기업 사업영역에서 시장실세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지조합은 2일 "삼성그룹 계열의 아이마켓코리아와 LG 계열의 서보원이 계열사에 포장을 출판사 상자를 비롯한 소모성 자재를 독점 공급하면서 중소기업시장 일각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구매대행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이들 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회사는 이들 그룹 계열사에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구매대행업체(MRO)다. 대기업이 '대행사'를 내세워 중소기업 시장에 진출한 뒤 막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LG 서보원과 삼성 아이마켓코리아는 국내 MRO시장 매출 1·2위 기업이다. 이들은 주로 그룹 주력 계열사에 소모성 부품 구매대행을 맡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국내 출판사 시장의 60%는 대기업에 납품한다. 중소 납품업체들은 2000년 이후 이들 대기업 계열사를 통해 대부분의 출판지를 납품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 대행사는 출판지를 납품받으며 납품업체에 10% 이상의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마켓코리아나 서보원은 계열사 물량을 독식할 뿐 아니라 일종 전제로 사업 영역을 넓혀 중소기업의 판로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연간 포장재 비용이 200억원 가량인 업체를 상대로 "비용 10%를 줄여줄 테니 납품권을 달라"며 구매대행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해당 대기업은 앞둔 자리에서

연간 2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들 업체와 계약하지만 이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대행사의 수수료를 포함해 10% 이상 가격인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합에 따르면 아이마켓코리아나 서보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피준, 선연료, 한림종계이코리아, 위경산업과 공급계약을 맺은 뒤 10%가량 가격을 후려치는 수법으로 판권 비용을 중소기업에 떠넘겼다.

구매대행 시장은 삼성·LG그룹은 물론 포스코, 코오롱, KT 같은 대기업이 2000년 초부터 자회사로 설립해왔다. 특히 아이마켓코리아에 반해 기업별·정장제를 이룬다. 통계청에 따르면 MRO를 비롯한 중개자 중점형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4년 103568억 원에서 2009년 37245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 공판지 납품 대행하며 '제가 공급' 비용 떠넘겨 중소기업들 "생존 위협" 공정위에 실태조사 요청

한국포장협회 관계자는 "2년여 전부터 대기업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그룹 전체 물량을 구매하면서 납품가를 후려치고 있다"며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업체들이 고사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동조합이라고 납품가격을 주고 6개월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주연사 가격을 또 깎는 식"이라며 "중소업체들은 납품권 자라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이마켓코리아와 서보원 측은 "연소 납품가격을 10%정도 올려줬는데 이 같은 주장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자율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LG그룹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구매대행사를 통해 납품하면 대량 납품은 아니어도 확실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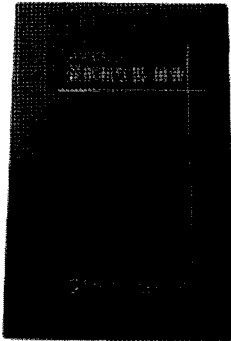
김주현·정지은 기자 [corpia@koreajournal.com](mailto:corpia@koreajournal.com)

### 구매대행서비스(MRO)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업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무·집안용품 등 소모성 자재를 구매에서 관리까지 대행해주는 사업. 생산과 관련된 원·부자재를 제외한 소액, 다빈도, 반복구매가 가능한 소모성 자재가 주된 품목이다. 현재 MRO 시장 품목수는 약 100만개에 달한다.

기업들은 MRO를 통해 5~10% 정도의 원가절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판로를 뚫는 데도 도움이 된다. 대기업의 소모품 구매가 MRO로 집중됨으로써 대기업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이 납품에 따른 납품가 인하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

## "2010년도 골판지포장 총람" 추가 신청 안내



골판지조합에서는 골판지포장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2010년도 골판지포장 총람"을 발간하였다. 이번 총람은 그 동안 수행한 국책과제의 연구결과 보고서 및 일본 단보루핸드북 등을 기초로 하여 제작된 국내 유일의 골판지포장 총람 서적으로 주요내용은 I. 포장과 물류 / II. 골판지포장 시장과 성장전략 / III. 골판지포장 경영과 영업관리 / IV. 골판지포장 생산 및 품질관리 / V. 골판지설계 및 원가결정 / VI. 골판지포장제조업 전과정평가 결과 / 농산물표준규격 출하, 우리나라의 연도별 골판지포장 및 원지 수급 동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매 문의는 골판지조합으로 신청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문의 : 김진구, 이정열 02-3474-7124~8)

## 2011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2010.7.3)는 201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110원에서 4,320원(시간급 210원 인상)으로 5.1% 인상, 결정하였다. ('10.8.5. 고용노동부장관령 고시 예정)

아울러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주지여부 등 「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을 7~8월 중에 실시하오니 집중감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고지 없이 불시 현장 부분감독)

2011년 최저임금 안내				
구분	시간급	일급(8시간)	월급	
			주40시간	주44시간
2011년	4,320원	34,560원	902,880원	976,320원
2010년	4,110원	32,880원	858,990원	928,86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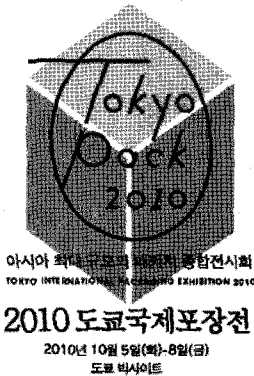
## “2010년도 조합원사 하계휴가 계획 현황 안내”

골판지조합의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2010년도 하계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조합원 62개사 중 40개사의 응답에 대한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2010년도 조합원사 토요일휴무 및 하계휴가계획 현황조사								
구분		수도권		지방		총계(수도권+지방)		2009년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비율(%)
휴가 주기	2교대	8	42.1	4	19.0	12	30.0	31.0
	일괄	10	52.6	16	76.2	26	65.0	67.0
	기타	1	5.3	1	4.8	2	5.0	2.0
	소계	19	100.0	21	100.0	40	100.0	100.0
휴가 기간	3일	6	31.6	6	28.6	12	30.0	43.0
	4일	12	63.2	10	47.6	22	55.0	45.0
	기타	1	5.3	5	23.8	6	15.0	12.0
	소계	19	100.0	21	100.0	40	100.0	100.0
휴가 시점	7. 30	3	15.8	2	9.5	5	12.5	21.0
	7. 31	6	31.6	9	42.9	15	37.5	24.0
	8. 1	1	5.3	2	9.5	3	7.5	24.0
	8. 2	1	5.3	4	19.0	5	12.5	-
	기타	8	42.1	4	19.0	12	30.0	31.0
	소계	19	100.0	21	100.0	40	100.0	100.0
토요일 휴무	휴무	8	42.1	9	42.9	17	42.5	45.0
	격주	5	26.3	0	-	5	12.5	10.0
	근무	6	31.6	10	47.6	16	40.0	38.0
	기타	0	-	2	9.5	2	5.0	7.0
	소계	19	100.0	21	100.0	40	100.0	100.0



## “2010 도쿄국제포장전 및 시찰단 파견” 안내



일본에서 개최하는 “2010 도쿄국제포장전”이 다가오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동경에 위치한 빅사이트전시장에서 개최예정이다. 1966년 이후로 매 격년 주기로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제22회를 맞이하며, 총 100여 관람 단체에서 후원하고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560여 업체가 참가하여 최신의 기술과 기기를 선보이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시회로 포장기술의 발전을 통해 생산, 유통 및 소비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시품목은 포장자재 및 포장기계에서부터 포장재 가공기계, 식품기계, 관련 기기류, 환경대응기재, 물류 기기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산/포장/유통 관련 기술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거래 상담이나 교류 및 포장에 관한 최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골판지조합에서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시찰단을 파견할 계획인데, 골판지포장산업의 최근 기술동향 파악 및 선진 골판지포장기업의 현장 답사를 통한 신기술도입, 생산성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해외시찰단 파견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번 시찰단은 일본 물류센터, 도매시장, 일본 골판지포장업체, 기계설비제조업체, 2010 도쿄국제포장전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실태 조사결과

최근 원자재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44.2%는 이를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한 곳은 3.9%에 불과한 반면, 조사 업체의 47.1%는 일부만 반영하고 있으며,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도 44.2%에 달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이 2009년 1월을 기준 100으로 하였을 때 2010년 4월에는 118.8로 약 20% 정도 상승하였으나, 납품단가는 거의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자재 구매가격 : 100('09.1) → 105.7('09.10) → 109.7('10.1) → 118.8('10.4)
- 납 품 단 가 : 100('09.1) → 100.6('09.10) → 100.4('10.1) → 101.7('10.4)

이에 중소기업들은 주거래 원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 하여 달라는 의견이 75.1%로 가장 많아 납품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조사업체의 45.2%가 대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 · 제재를 요구하였고, 원자재 공동구매 활성화 22.6%,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16.8%로 각각 응답하였다.

한편 지난 2009년 4월 당시지간의 자율적인 납품단가의 조정을 위해 도입한 '납품단가조정협회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25.5%)와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기능 부여' (19.7%)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조사업체의 38.9%는 원자재가격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납품단가조정협회의무제도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업체가 46.6%로 2009년 11월 조사시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조사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다각 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활용의사에 대해서는 59.1%가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납품단가조정협회의무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업체의 29.9%가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중소기업 1,2세대 가업승계 실태조사

중소기업의 약 70%는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며, 약 50%는 이미 후계자를 결정한 상태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속 · 증여세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문리서치기관인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조사 의뢰해 실시한 “중소기업 1·2세대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 중소기업의 68.5%가 가업승계 계획

○ 중소기업 경영자의 68.5%는 가업승계 의향을 보였으며 가업승계 의향이 없는 기업은 불과 11.4%에 불과하였다.

○ 가업승계를 하려는 주된 동기는 경영자, 후계자 모두 “기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의견이(경영자 69.4%, 후계자 79.5%)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영자는 “본인의 고령, 건강 때문에”(29.4%), 후계는 “가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 때문에”(34.8%)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중소기업 57.0%는 가업승계 대상으로 자녀를 선택

○ 중소기업의 57.0%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전문경영인에게 승계” 7.2%, “임직원에게 승계” 3.0%, “친족에게 승계” 1.5%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업승계 대상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기업도 26.6%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소기업의 48.3%는 후계자를 이미 선정

○ 중소기업 경영자는 후계자 선정여부에 대하여 전체의 48.3%가 이미 후계자를 정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응답은 41.1%, 마땅한 후계자가 없다는 응답이 10.6%로 조사되었다.

○ 하지만, 경영후계자를 정해놓고 있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사전준비 진행정도에 대해서는 대상기업의 68.5%가 “불충분하거나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영자의 50.8%(후계자 52.8%)가 1·2세대간 의사소통에 만족

○ 가업승계 관련 의사소통 원활화 정도에 대해서 경영자 50.8%, 후계자 52.8%가 “원활하다”고 조사되었으며,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은 후계자 12.4%, 경영자 7.7%로 나타났다.

○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경영자는 “우리나라 정서상 승계문제를 공식화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33.3%로 높았으며, 후계자는 “경영자의 수직적, 일방적 의사소통”이라는 의견이 40.9%로 높게 분석되었다.

□ “상속 · 증여세 등 조세부담”이 가업승계 주된 애로

○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경영자와 후계자 모두 “상속 · 증여세 등 조세부담”(경영자 73.4%, 후계자 78.3%)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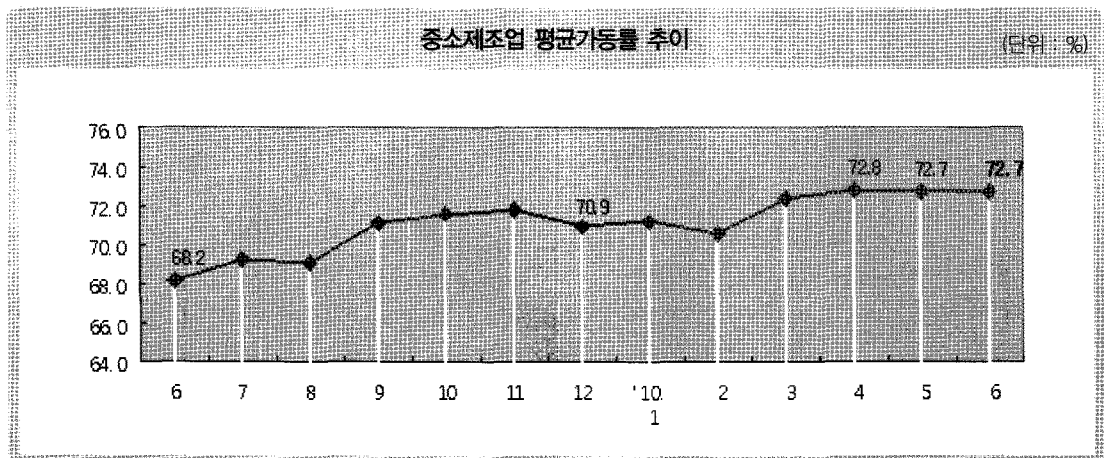
□ 가업승계 원활화 최우선 과제 : 상속 · 증여세 부담 완화

○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상속 · 증여세 부담 완화”가 8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업승계 금융지원 확충” (27.0%), “법률 · 조세 · 회계 · 경영 컨설팅 지원”(21.3%),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 마련”(14.4%),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3.3%), “세대간 의사소통 프로그램 마련”(4.9%) 등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중앙회에서는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경영 1·2세대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조사결과를 정부, 국회, 유관기관 등 정책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6월 中企 평균가동률 72.7%, 3개월 연속 담보 상태

중소기업중앙회는 1,43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동률조사 결과 6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7%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 4월 72.8%를 기록한 후, 3개월 연속 담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는 수출호조 및 월드컵 특수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건설경기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 중소기업 평균가동률 추이							
	'09.6월	'1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68.2	71.2	70.5	72.4	72.8	72.7	72.7
전월대비증감(%p)	0.1	0.3	△0.7	1.9	0.4	△0.1	-
전년동월대비증감(%p)	△1.6	8.6	6.6	6.9	4.8	4.6	4.5
· 소기업	66.4	69.0	68.4	70.2	70.8	70.8	70.8
· 중기업	72.4	76.1	75.2	77.2	77.2	76.8	76.9
· 일반제조업	67.3	70.3	69.7	71.4	71.8	72.1	72.0
· 혁신형제조업	71.9	74.6	73.9	76.0	76.3	74.9	75.5

○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70.8%→70.8%)은 전월과 동일, 중기업(76.8%→76.9%)은 상승했으며,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제조업(72.1%→72.0%)은 하락했으나, 혁신형제조업(74.9%→75.5%)은 상승했다.

○ 한편, 정상가동업체(가동률 80%이상) 비율은 47.3%로 전월(47.8%)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가동업체 비율추이							(단위 : %)
'09. 6월	'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5.4	44.1	40.2	48.3	46.7	47.8	47.3	

○ 업종별로는 의료용물질및의약품(78.3%→80.7%), 섬유제품(71.7%→73.9%), 식료품(71.5%→72.8%) 등 13개 업종은 상승한 반면, 의복, 액세서리및모피제품(74.1%→71.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70.9%→69.3%),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68.2%→66.9%) 등 9개 업종은 하락했다.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가동률				(단위 : %)
KSIC - 8	'09.6	KSIC - 9	'10.5	6
중소제조업	68.2	중소제조업	72.7	72.7
음식료품	74.1	식료품	71.5	72.8
		음료	74.07	4.1
섬유	68.1	섬유제품	71.7	73.9
의복 및 모피	68.3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74.1	71.5
가죽, 가방 및 신발	62.6	가죽가방및신발	72.8	72.6
목재 및 나무	65.3	목재및나무제품	68.7	69.8
종이 및 종이제품	69.8	종이및종이제품	74.0	75.2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63.7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70.9	69.3
화학물질및화학제품	72.5	화학물질및화학제품	76.5	75.5
		의료용물질및의약품	78.3	80.7
고무및플라스틱	66.3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68.2	66.9
비금속광물	66.5	비금속광물제품	72.1	71.6
제1차금속산업	70.71	차금속	73.1	73.6
조립금속	68.5	금속가공제품	73.2	73.8
컴퓨터및사무용기기	64.8	전자부품, 컴퓨터,	69.7	70.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65.8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68.3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75.9	75.0
전기기계 및전기변환장치	68.0	전기장비	71.9	72.3
기타기계및장비	68.2	기타기계및장비	74.0	72.5
자동차부품	69.6	자동차및트레일러	77.1	77.7
기타운송장비	72.4	기타운송장비	72.3	74.2
가구 및 기타	67.5	가구	68.9	67.7
		기타제품	71.0	71.3